

# 민주통합 애매한 '공천 룰' 뒤탈 부를라

여성 15% 의무공천 남성후보들 "이중 특혜" 법적대응 불사  
 합당·통합 기여 가산점 "나도 큰 역할했다" 공로 인정 경쟁  
 정체성 평가 4대강·FTA 등 공심위원마다 기준달라 시비거리

민주통합당이 4월 총선에 대한 공천 기준과 방법을 12일 최종 결정하고 13일부터 각 지역별로 공천심사 작업에 착수하게 됐음에도 애매모호하고 뒤탈이 우려되는 일부 공천 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공천 심사 후 법적 분쟁 내지 당내의 갈등과 분열이 이어질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여성 지역구 의무 공천 및 우대 ▲청년 비례대표 선출 ▲아권통합 공로자 가산점 ▲정체성 평가 기준 등이다.

◇여성후보 의무 공천 및 가산점 논란=여성 후보에 대해 10~20%의 가산점을 주는 규정과 관련, 상당수 남성후보들은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역구의 15%를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공천하라고 규정함에 따라 이중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 소속 남성 예비후보 46명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의무추천제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며 폐지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정래 전 의원 등 일부 남성 후보들도 지난 8일 한명숙 대표와 만나 "15%를 못 맞춰서 여성이 가져 분산점을 내면 (지역구 공천자) 245명 내지 전체 공천자가 무효화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 대표는 "당위원회에서 사전 협의와 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큰 (법적)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사무총장은 "경선 결과가 당규에 미치지 못할 때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있으면 그때 대처해도 늦지 않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당 공로자 및 아권통합 공로자 가산점=민주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및 통합과 합당에 기여한 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때문에 일부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통합에 큰 역할을 했다며 당 지도부를 대상으로 공로 인정 경쟁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명시되지 않아 당 지도부가 임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높은 규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당 지도부의 친분과 계파 이해관계에 따라 혜택과 불이익의 갈림길에 설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청년 비례대표 선출=우선 36세 이상이 배제된 점에 대한 반발이 식지 않고 있다. '70년대생 당원모임'은 이날 한 대표를 찾아 "현재 슈퍼스타 K 방식으로 치러지는 청년 비례대표 선출은 이벤트성에 불과하다"며 "현재 당 지도부에 진입한 486세대처럼 지금 70년대생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발표한 116명의 심층 면접 대상자 선발 기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적지 않은 상태다. 모든 서류 제출 후에 심사기준이 공개된 점, 심사위원이 공개되지 않은 점, 공천자 평가 기준이 3~4일 사이에 두 번이나 바뀐 점 등이 탈락자들 사이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정체성 평가 및 면접 기준=공천심사위는 정체성에 20%, 면접심사에 20%의 배점을 두기로 한 것

로 알려지고 있다. 또 그 그대로 4대강 사업과 한미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한 태도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체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공심위원마다 다를 수 있고 지역구의 특성에 따라 정치적으로 약간 다른 입장을 보인 정치인들을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영산강 치수사업의 경우, 4대강 사업 반대라는 포괄적 원칙에 따라 찬반을 논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공심위원과 당 지도부의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전남도 선거위는 지난 10일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가졌다. 350명의 감시단원들은 행동강령 낭독과 구호제창 등을 통해 이번 총선을 깨끗한 선거로 이끌어가는 파수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광주시 선거위도 이날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민주통합, 공천신청 호남 제외 전지역서 증가

미신청 지역구도 18대 보다 급감... 72개서 15개로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공천 신청자가 2008년 18대 총선에 비해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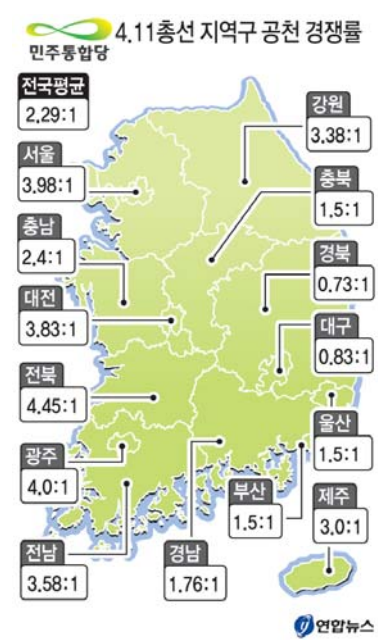
민주당이 12일 발표한 지역구 후보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9개 지역구에서 713명이 신청해 평균 2.9 대 1의 경쟁률로 2008년 2.0 대 1보다 높아졌다. 호남은 18대에 비해 신청자가 줄었다. 광주 공천 경쟁률은 2008년 8.3 대 1에서 4.0 대 1로 낮아지고, 같은

시기 전남은 5.3 대 1에서 3.6 대 1로, 전북은 6.8 대 1에서 4.5 대 1로 각각 떨어졌다.

이는 2008년 총선 때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각해 후보들이 상대적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9개 지역구에서 713명이 신청해 평균 2.9 대 1의 경쟁률로 2008년 2.0 대 1보다 높아졌다. 호남은 18대에 비해 신청자가 줄었다. 광주 공천 경쟁률은 2008년 8.3 대 1에서 4.0 대 1로 낮아지고, 같은

경쟁률이 2.5 대 1에서 4.0 대 1로 상승하고, 경기도는 178명이 신청해 1.7 대 1에서 3.5 대 1로 높아졌다. 수도권 신청자는 모두 407명으로 전체의 57.1%를 차지했다. 영남권 신청자도 크게 늘었다. 올해의 경우 부산(1.5 대 1)·울산(1.5 대 1)·경남(1.8 대 1) 등 문재인 상임고문의 출마 등으로 관심이 집중된 PK에서는 경쟁률이 1 대 1을 넘었다.

미등록 선거구는 2008년 72개 선거구에서 올해 15개 선거구로 급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민주통합 140對 새누리 120?

총선 D-58... 의석 확보 얼마나

111석 걸린 수도권

최대 승부처 부상

여야 지각변동 예상

여야는 수도권, 부산·경남(PK), 충청권 등 세 곳을 승부처로 삼고 있다.

특히 111석이 걸린 수도권이 핵심이다. 민주통합당은 이중 70% 이상을 장악한다는 목표다.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둔 후 부산·경남(PK) 지역 선전을 묶어 다수당을 부상한다는 계산이다.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은 10일 "이번 총선 목표는 새누리당을 누르고 다수당이 되는 것"이라면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150석)을 확보한다면 압승"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4·11 총선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으면서 여야의 의석 확보 목표치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 정권 심판론과 전대 둔봉투 사건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면서 고전을 예상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삼을 만큼 희망적이다.

하지만,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여전히 전하고 군소정당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여야 모두 단독 과반 의석 확보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새누리당이 120석 내외, 민주당은 140석을 돌파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현재 새누리당 의석 수는 174석, 민주통합당은 89석이다. 여야 모두 이번 총선에서 이 같은 의석 구도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지역구 100석 안팎, 비례대표 20여석 등 모두 120석을 확보한다면 그나마 '선방'이라

## 빛의만정

- 김중두



## 민주통합-통합진보 총선연대 본격 논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이번 주부터 4·11 총선에서의 연대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들어간다.

민주당 임종석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초에 야권연대 협상 테이블을 꾸리고 중앙당 차원의 야권연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남은 전체 17개 지역구에서 경선 방식을 통해 (통합진보당과) 후보 단일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울산 남구와 동구는 야권연대를 염두에 두고 아예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울산시 차원에서 입장을 정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공심위는 통합진보당과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큰 부산, 경남, 울산 지역부터 공천심사를 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www.jaUtour.com**  
**자유투어**  
 광주지점 062)371-3757

**출발확정 3월28일** [준특급+급호텔] 로마지항 / 3대박물관 서유럽4국 (영국/프랑스/스위스/이태리) 9일 3,890,000원 + 유류할증료

**중국**  
 [봄의 도시] 곤명/석림/구향동굴 5일/6일 599,000원  
 천하절경 529,000원  
 계림/이강유람 5일/6일 529,000원  
 서안/빙마용/진시황릉/화청지 4/5 일 399,000원  
 정주/소림사/운대산/용문석굴(개봉) 4일/5일 449,000원  
 구채구/모니구/성도(낙산대불) 5일/6일 399,000원  
 대만/화련/지우펀/야루/윤천현 4일 449,000원

**일본**  
 [NS홍소핑 HT] 후쿠오카 아마구치 특급로칸온천 4일 199,000원  
 명동여행 특급 북해도 알프스 4일/5일 599,000원  
 [오사카] 나라 교토 고베 아리마 3일 379,000원  
 [동경] 시즈오카 요코하마 하코네 4일 449,000원  
 [가고시마] 이부키모 모래찜질 3일/4일 599,000원  
 [오키나와] 자청내림 파라다이스 일주 3일/4일 699,000원

**미주**  
 미국서부 3대도시+3대캐년 8일 139,000원  
 하와이 + 미서부 11일 1,890,000원  
 하와이 일주 5일/6일 98,000원  
 자유여행 절대특선  
 뉴욕/워싱턴/나이아가라/보스턴 8일 189,000원  
 캐나다 항공일주 8일 179,000원

**동남아**  
 환상의 섬 세부 4일/5일 399,000원  
 [가장과파] 방콕 파티야 5일 399,000원  
 [베트남] 다낭/호이안/후에 5일/6일 499,000원  
 푸켓 [피피섬+사이먼쇼+핀아나+코끼리드래킹] 5일/6일 599,000원  
 [말레이시아] 발리 전통마사지(1시간+3대특식) 5일/6일 699,000원

**유럽**  
 서유럽 6국 12일 3,090,000원  
 [스페인] 파도리아 실트호른/백조와성 5일/6일 179,000원  
 [노퍽] 서유럽 4국(영/프/스/이) 9일/10일 1,690,000원  
 멜크와 캄파섬 동유럽 6국 9일/10일 1,290,000원  
 "항공이동" 스페인/포르투갈 10일 1,890,000원  
 이집트/그리스/터키 11일 1,890,000원

**호주 뉴질랜드**  
 알리오레드 시드니 제비스베이 6일 1,490,000원  
 PIC 골드 4일/5일 (선인+소아) 667,000원  
 [특급일정] 국적기직항/9대특식/특급호텔 호주/뉴질랜드 북섬 8일 1,890,000원  
 [JaU] 항공이동/노퍽/유류할증료 포함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0일 3,290,000원

**예/약/상/담**  
 북구점 267-8587  
 상무점 652-2974  
 수완점 574-1300  
 동구점 227-8255  
 남구점 382-5353  
 침단점 233-2627  
 총장점 222-9796  
 하남점 954-9700  
 광천점 350-6226